



1995년 '경계를 넘어'를 주제로 열린 제1회 광주비엔날레에는 165만명이라는 경이적인 숫자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광주비엔날레는 지난 20년간 세계의 현대미술을 국내에 소개하는 역할을 하는 등 국내 미술계의 흐름을 바꿨다. <광주비엔날레재단 제공>

글로벌 현대미술 프로젝트 자리매김

2014 스무살 광주비엔날레

<중> '경계를 넘어' 성과와 가능성

광주비엔날레는 광주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국제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지난 6월 열린 공청회에서도 이지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운영부장은 "광주비엔날레는 명실공히 글로벌 현대미술 프로젝트로 성장하고, 자리 잡은 것이 사실이다"며 "영국 등 해외의 미술 선진국에서도 그 같은 인정을 충분히 받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전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술인 100명 중 1위에 이름을 올린 니콜라스 세로타 영국 테이트미술관장 등 해외 유명 기획자들이 2014광주비엔날레 개막 행사에 참석하거나 전시를 둘러본 것도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광주비엔날레가 지난 20년 동안 쌓아온 국제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세계 속에 한국을 알린 것이다.

현재 광주비엔날레는 '변화' '개혁'을 위한 몸부림을 하고 있다. 광주비엔날레는 그 과정에서 정착 및 가야할 광주비엔날레만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

◇국제 브랜드 가치=올해는 광주비엔날레에 의미 있는 발표가 있었다. 세계적 권위의 미술 인터넷 매체인 아트넷(www.artnet.com)이 지난 5월 발표한 세계 5대 비엔날레에 광주비엔날레가 선정됐다. 광주비엔날레는 베니스비엔날레(창설 1895년), 카셀 도큐멘타(1955년), 휘트니비엔날레(1932년), 마니페스타(1996년)에 이어 다섯 번째로 영향력 및

세계 5대 비엔날레...현대미술의 흐름 바꾸는 국제적 행사

제프 쿤스·요셉 보이스 등 현대미술 거장들도 전시 참여 지역작가 세계적 작가로 키우지 못하고 시너지 못내 아쉬움 '광주정신' 우울하고 아픈 역사 넘어 큰 가치로 승화시켜야

는 비엔날레로 이름을 올렸다. 더구나 창설 당시 20개 수준이던 전 세계 비엔날레는 현재 350여 개에 달한다.

비엔날레 역사와 관객 수, 영향력, 큐레이터 등 다양한 지표들 산출해 발표하는 결과는 그동안 광주비엔날레가 뜬 구름 잡기식으로 이야기했던 세계적인 브랜드 가치를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길게는 100년 짧게는 60년 이상 된 국제 미술 행사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20년이라는 짧은 역사를 가진 광주비엔날레의 저력을 보여줬다.

하지만 이같은 브랜드 가치에 광주비엔날레가 매몰되서는 안된다. 세계적인 것만큼 지역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세계적인 브랜드 가치 속에서 광주를 함께 보여줘야 한다.

그동안 광주비엔날레 참여 작가는 1400여 명에 달한다. 세계적인 스타 작가인 제프 쿤스를 비롯해 신디 셔먼, 게르하르트 리히터, 요셉 보이스, 빌 비올라 등 수많은 현대미술 거장들도 광주비엔날레 참여 작가로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광주비엔날레를 기반으로 세계적인 작가로 거듭난 지역 작가나 국내 작가들은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2010년 광주비엔날레 총감독을 지낸 이후 2013 베니스비엔날레 총감독으로 선정된 마시

말리아노 지오니노 베니스비엔날레 전시를 기획하면서 광주비엔날레 출신 작가들을 포함하지 않아 아쉬움을 주기도 했다.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외 지역 작가를 세계적인 작가로 키워내는 것도 광주비엔날레의 몫이다.

◇세계 속에 알려진 '광주정신'=광주비엔날레는 전 세계 비엔날레 중 유일하게 창설문을 갖고 있다. '광주의 시민정신'이라는 창설문이다. 광주비엔날레 총감독들도 기획에 앞서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광주정신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또 그것들을 전시에 녹여내 왔다. 광주비엔날레가 지닌 가치를 바탕으로 총감독이 행사의 컨셉을 만든 것이다. 이를 통해 광주정신은 역사적, 사회적 가치를 인정 받고 있다.

아쉬운 점은 '광주정신'이 언제까지나 암울하고, 우울하고, 아픈 역사로만 기억되어야 하는 것이다. 광주비엔날레가 광주정신을 보다 큰 가치를 만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전시에서도 이 같은 아픔만이 비친 것도 안타깝다.

◇비엔날레 문화=최근 한 유명 작가는 광주비엔날레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면서도 "광주비엔날레가 처음 열릴 때 대학생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비엔날레가 뭔지, 현대 미술이 무엇인지 몰랐다"

며 "광주비엔날레를 보고 많은 것을 배웠다"고 당시의 설렘을 전했다.

광주비엔날레는 이름조차 생소한 비엔날레를 국내에 소개하면서 현대미술의 흐름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 제1회 행사에 165만 명이라는 경이적인 관람객이 왔은 이유로 사람들에게 현대미술에 대한 목마름을 채워줬기 때문이다.

광주비엔날레의 정착은 현대미술에 대한 관심도를 높였고, 이를 기반으로 2002년 국제아트페어인 키아프 등 현대미술 시장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국제행사들이 잇따라 만들어지기도 했다.

◇국내의 객관적 평가=지난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예술경영지원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비엔날레는 해외에서도 널리 알려진 국내외의 대표적인 국제비엔날레로서 미술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특히 초청된 작가들의 역량 및 인지도, 주제 적합도 등에서 작품의 수준이 떨어지지 않았고, 국내에서 보기 드문 작가들의 작품이 소개되었다는 점에서 국내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작품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비엔날레 전시장 인근 문화벨트에 있는 광주시립미술관, 국립광주박물관과의 시너지를 내지 못했고, 국내외 타 비엔날레와 마찬가지로 향후 방향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비엔날레는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지난 2010년 발표한 시각 예술분야 축제·행사 부문에서 인지도 1위를 차지했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축제·행사 2위에 이름을 올렸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임방울국악제 수상자들 우즈베키스탄 공연한다

(사)임방울국악진흥회(이사장 김종채)는 임방울국악제 수상자들의 해외 공연을 통해 예향 광주를 세계 곳곳에 알리려 왔다.

지난 2010년 일본 가와사키를 시작으로 요코하마와 고베에서 공연을 가졌고 지난 2012년에는 4500석 규모의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콘서트홀 무대에 올라 큰 박수를 받았다.

(사)임방울국악진흥회는 올해 다시 4박 5일(18일~22일) 일정으로 우즈베키스탄을 방문, 국악의 매력을 선보인다. 올해는 옛 소련이 우즈베키스탄에 우리 동포 60만명 중 22만명을 강제로 이주시킨 고려인 정주 77주년과 한·우

즈베키스탄 수교 22주년을 맞는 해이다.

오는 21일 오후 4시 타슈켄트 투르키스톤 국립극장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에는 주우즈베키스탄대한민국대사관 이육헌 전권대사, 고려인문화협회장, 주재 상사원, 교민, 현지인 등 1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에는 대통령상 수상자 김민아·김찬미씨를 비롯해 세한대 농악팀 등 21명이 참여하며 판소리, 풍물판굿, 소고무, 기악산조 합주, 판소리 '춘향가' 중 '썩대머리', 가야금병창, 부채춤, 남도민요 등을 무대에 올린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가야금 연주단 '가연하비' 목요 국악한마당 무대에

13일 빛고를 국악전수관

가야금 연주단 '가연하비'가 광주시 서구가 진행하는 목요일국악한마당 무대에 선다. 13일 오후 7시 광주시 서구 빛고를 국악전수관.

가야금 연주자 정선옥씨가 이끄는 '가연하비'는 '가야금과 연을 맺어 하늘로 비상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으며 초등학교 생부터 성인 연주자로 구성돼 있다.

뿌리가 다른 나뭇가지가 서로 엉켜 마치 하나의 나무처럼 자라는 '연리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의 첫무대는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가 장식한다. 또 티벳족의 유목생활을 표현한 양금 2중주곡 '티벳꽃', 청춘을 그리는 가연하비 자작곡 '사계', 익숙한 세계 민요 '벚꽃', '모리화', '꿈길에서'를 만날 수 있다.

또 민요 '경복궁 타령'을 주제로 한 '궁타령의 맛'은 어린이들의 연주로 들을 수 있으며 마지막 무대는 각 지방의 민요 여러 곡을 연주하는 '민요樂'이 장식한다. 무료 공연. 문의 062-350-455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피노키오

PINOCCHIO

Music by Nodar Tchanba

엄마가 들려주는 동화발레

주최 : B 서울발레단

주관 : 광주일보 | 문화공방디케이비(주)

후원 : B 한국발레재단

예매 : 인터파크 ticketlink

문의 : 062) 523-0333

입장 : 만 36개월 이상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2014. 11. 30(일) 11시, 15시

TICKET

R 30,000 / S 20,000 / A 10,000

